

蘇童의 『城北地帶』에 나타난 결핍과 상처*

— 청소년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장윤선**

【목 차】

1. 참죽나무 거리(香椿樹街)와 수수
2. 성북지대(城北地帶), 폭력과 억압의 공간
 - 1) 추악한 가정의 민낯
 - 2) 붕괴된 학교 현장
 - 3) 일그러진 사회
3. 야반화(夜飯花), 거세된 未完의 청춘
4. 나오며

【초록】

『城北地帶』는 蘇童의 ‘참죽나무 거리 텍스트’ 중의 대표작으로 작가가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反芻하며, 상처와 결핍으로 얼룩진 성장과정을 復原해 낸 자전적 장편소설이다. 蘇童은 문혁이라는 억압된 사회구조에서 문혁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작동했고, 어떤 상처와 흉터를 남겼는가에 주목한다. 이는 문혁이라는 암흑의 터널 속에서 비정상적인 성장통을 겪어야했던 청소년들의 결핍과 상처에 대한 穿鑿으로 이어진다. 본 논문은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된 채 방황과 일탈로 점철된 성장통을 겪는 청소년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그들 내면의 상처와 결핍, 고독과 소외, 좌절과 절망감을 고찰한다. 청소년 인물형상을 둘러싼 불투명한 잣대 미래와 비극적 파국을 통해서, 蘇童은 청춘과 꿈을 박탈해가고 거세해버린 억압적 문혁의 시대와 그 역사적 과오와 상처에 대해 작가로서의 비판적 성찰을 보여준다.

【키워드】 수수(蘇童), 『성북지대』, 참죽나무 거리, 청소년 인물형상, 결핍, 상처, 야반화(夜飯花)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zhyxuan@pcu.ac.kr)

1. 참죽나무 거리(香椿樹街)와 쑤통

부단한 실험정신과 열정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쑤통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국내에도 그의 작품이 많이 번역되어 있다. 쑤통의 작품 세계에 대한 문학적 지식이 있는 독자나 연구자라면, ‘참죽나무 거리’에 대해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 특별한 지명의 거리는 쑤통이 태어나 자란 고향마을 쑤저우의 옛 거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문학작품 창작과 삶의 주요 모티브가 된다.¹⁾ 쑤통은 ‘참죽나무 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참죽나무 거리”는 물리적인 의미로는 하나의 좁은 거리에 불과하지만, 화학적 의미에서 보면 아주 매우 넓은 거리입니다. 내가 이 거리를 쓴 것은 세상에 이 작은 거리를 말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을 이 작은 거리로 가져왔습니다. 참죽나무 거리는 내 일생의 창작 지도입니다. 참죽나무 거리 시리즈를 나는 아주 오랜 세월동안 구축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창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죽나무 거리는 평생을 나와 함께 해왔기 때문이죠.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참죽나무 거리 이야기를 써왔지만, 이야기 속의 인물이나 이야기 방식은 같지 않았습니다. 총을 한 번 쏘고 장소를 바꾸는 것처럼 나는 이 거리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내게 참죽나무 거리 이야기는 아마도 죽을 때 까지도 다 써내려가지 못할 이야기일 것입니다.(“香椿樹街”從物理意義上就是一條狹窄的小街，從化學意義上，它很大。我寫它倒不是要讓這條小街走向世界，對我來說，我是把全世界搬到這條小街上來。它是我一生的寫作地圖。這個“香椿樹街”系列我已經建制很多年了，未來我一定還會寫的，因為香椿樹街是陪伴我一輩子的。從上世紀八十年代到現在，我一直都在說“香椿樹街”上的故事，但故事的人物、故事的說法始終是不一樣的。所以“打一槍換一個地方”也可能還是在這條街上。像香椿樹街的故事，我可能到死都不寫完。)，²⁾

작가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참죽나무 거리는 쑤통에게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참죽나무 거리는 쑤통의 창작에 소재를 제공하는 문학적 뿌리이자, 영감과 상상력을 샘솟게 하는 원천이 된다. 수많은 텍스트에서 쑤통은 참죽나무 거리를 매개로 옛 고향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년시절의 각종 풍경을 소환해낸다. 마을을 휘감는 강물과 하천, 고색창연한 성벽과 석교, 닥치닥치 붙어있는 민가, 빛바랜 회색 담장, 계란 하나에도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는 이웃들 등등. 이 모든 유년시절의 기억과 풍경이 그의 참죽나무 거리 텍스트를 구축하는 문학적胎盤이 된다. 특히 인용문에서 쑤통은 ‘세상을 이 작은 거리로 가져 왔다’고 말하는데, 이는 참죽나무 거리가 세상의 축소판으로서 온갖 일상과 사건이 펼쳐지는 무궁무진한 서사의場이 됨을 의미한다. 서사의 장을 수놓는 주요인물 형상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貧民들이다.³⁾ 쑤통

1) 쑤통은 참죽나무 거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는 쑤저우의 성북지역에 있는 오래된 옛 거리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 시절의 기억은 매우 선명하며 감동적이다. 소위 평론가들이 ‘유년의 시각’, ‘유년의 기억’이라고 일컫는 내 많은 단편 소설 작품들이 바로 나의 유년시절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童年時代在蘇州城北一條古老的街道上度過。那段生活的記憶總是異常清晰而感人。我的許多短篇小說都是依據那段生活寫成，誠如許多評論家所說是‘童年視覺’、‘童年記憶’。)” 蘇童, 「一份自傳」, 汪政·河平, 『蘇童研究資料』, 天津人民出版社, 2007, p.9 참고.

2) <https://www.douban.com/note/554244574/>(蘇童: 香椿樹街的故事, 我到死都不寫完) [2016.04.27] 참조

3) 작가는 자신도 빈민층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궁핍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주변 이웃들의 힘겹

은 가난과 빈곤에 맞서 악전고투하는 이들의 고단한 삶과喜怒哀樂을 펼쳐낸다. 수많은 인물 형상이 빚어내는 각종 삶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잘 것 없던 옛 거리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생산하는 寶庫가 되고, 중국에는 거대한 참죽나무 거리 창작 지도를 탄생시킨다. 이처럼 매번 다른 이야기와 서술방식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야기꾼이다. 특히 무궁무진한 텍스트를 탄생시키는 참죽나무 거리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쭈통에게는 작품 창작의 영원한 모태가 되는 귀중한 문학적 자산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참죽나무 거리에 대한 쭈통의 감정이 兩加性을 띤다는 사실이다. 쭈통은 다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무수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참죽나무 거리에 대한 나의 고집스러운 묘사가 이 길에 대한 옛 추억을 되새기려함인지, 아니면 이를 훼손시키려 함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 거리를 대신 하여 오랜 세월을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이 거리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참죽나무 거리는 지치고 어린 듯 내 가슴속에 기대어 한참의 세월이 흘렀다. 이 거리와 마찬가지로 내 몸도 나이 들고 수척해졌지만, 내 마음만은 단호하다. 나는 허구로 지어진 이 거리에 온통 온정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영혼이 아직도 이 거리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 수많은 소설이 감감한 암흑 속에서의 회고이다.(我無數小說作品中的香椿樹街, 我從來不知道我對香椿樹街固執的描繪是出於緬懷之情還是懷毀之心, 我替一條街道說話已經說了很多年, 那條街道始終保持沉默...香椿樹街則疲倦而柔弱地靠在我一個人的懷抱裏, 多少年過去了, 我和這條街道一樣, 變得瘦弱而又堅強. 我對這條虛構的街道充滿了溫情, 還有敵意, 我不知道我的靈魂還在不在這條街上. 說到底許多小說只是在幽暗中的一個回憶的姿勢。)⁴⁾

알다시피 양가적이라 함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인 ‘애착’과 부정적 가치인 ‘배척’이 함께 병존하며, 상호 충돌하는 모순된 상태를 의미한다. 상술한 인용문에서 참죽나무 거리를 둘러싼, 작가의 복잡하고 모순된 양가적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참죽나무 거리는 비록 빈곤하고 불우했던 유년 시절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쭈통에게 친근했던 고향 풍경과 그리운 옛 동무들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애정과 긍정의 대상이 된다. 쭈통의 다른 글을 보면 “우리에겐 여전히 추억할 만한 유년시절이었다(我們自己仍然有一個值得緬懷的童年)”, “재난 가운데서도 파스한 햇볕으로 충만한 하늘이었다(災難之中一片充滿陽光的天空)”라며, 그리움과 추억으로 아로새겨진 유년시절을 회고한다. 그에 따르면 유년시절 자신과 동년배들은 마치 밖에서 풀어놓은 닭들처럼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마음대로 거리로 들로 강가로 쏘다니며 자유롭게 놀았다고 회상한다.⁵⁾ 이는 아마도 당시 문혁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 걸핏

고 고단한 삶을 보아 왔기에, 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이 가며 이런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을 좋아한다고 끊임없이 말해왔다. 작품 속 단골처럼 등장하는 인물형상인 밑바닥 빈민층, 눈물과 한을 안고 사는 여성들, 방치된 채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 등이 바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참죽나무 거리 이웃들의 삶을 모델로 한 것이다. 쭈통은 본고의 연구대상인 『성북지대』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 자라면서 보아왔던 서민들의 생활을 오롯이 담아내고 싶었다. 삶의 무게에 탄식하면서도 고난과 불행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그들의 질긴 애증과 고독이 잘 표현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서민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피력한다. 『성북지대』, 표지 글 중 작가의 말 인용. 출처, 『성북지대』, 송하진 옮김, 비채, 2011.

4) 蘇童, 「關於現實, 或者關於香椿樹街」, 汪政·河平, 『蘇童研究資料』, pp.60-61.

5) 蘇童·王宏圖, 『蘇童·王宏圖對話錄』, 蘇州大學出版社, 2003, p.81, p.83 참고.

하면 여기저기 동원되는 부모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부재를 틈타 무한한 자유와 재미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 문혁이라는 재난의 시대임에도 참죽나무 거리가 쑤통에게 즐거웠던 동심과 추억,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대상이자, 애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참죽나무 거리에 무한한 애정을 보낼 것만 같았던 쑤통은 돌연 ‘이 거리에 대한 내 감정은 온통 파스한 온정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고뇌에 찬 언사로, 자신의 복잡하고 모순된 심경을 토로한다. 행간에서마져 작가의 괴로움이 느껴질 정도이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적대감이란 과격한 언사를 쓸 정도로, 참죽나무 거리에 대한 강한 부정과 배척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일까. 자못 의문이 생긴다.

참죽나무 거리에 아무리 즐거운 기억과 따뜻한 추억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한 권에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병존한다면 어쩌면 참죽나무 거리는 꺼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장소일 것이다. 더구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존재한다면, 그 장소에 원망과 분노를 넘어 적대감마저 가질 것이다. 이런 추정을 바탕으로 심리적 원인을 추적해보니, 유년시절을 관통하는 지점에서 ‘文革’을 마주하게 된다. 문혁은 당시를 경험한 모든 중국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처럼, 쑤통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참죽나무 거리는 쑤통에게 문혁의 아픔과 상처가 각인되어 있는 가슴 아픈 공간이기도하다. 문혁의 폐해는 쑤저우의 편벽한 성북지대 마을에도 광풍처럼 휘몰아쳤다. 욕망과 자유가 억압당하고, 생명이 경시되고, 감시와 통제가 팽배했던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은 송두리째 짓밟혔다. 사람들은 궁핍한 빈곤에 시달렸으며, 공포와 두려움, 불행과 재앙으로 얼룩진 痛恨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부모님과 선생님, 주변 이웃의 고초를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쑤통에게 문혁은 상처의 기억으로 남았다.⁶⁾

문혁에 대한 아픈 경험과 기억은 훗날 작가가 된 쑤통이 회피하거나 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쑤통에게 필요한 것은 아픈 상처와 기억에 대한 냉철한 사색과 객관적 직시이다. 물론 상처의 기억을 다시 헤집고 더듬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행위이나, 이런 침예한 직시를 통해서 쑤통은 문혁의 시대가 빚어낸 역사적 과오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그는 중국 사회 전역을 폐허화시키고, 당시 중국인들의 삶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지운 문혁의 세월과 사회에 적대감을 토로하는 것이다. 위 고백에서 작가는 자신의 영혼이 아직도 이 거리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쑤통은 여전히 이 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돌며, 아픈 상처의 기억과 과거의 역사와 대면한다. 그리고 그는 문혁이라는 억압적 사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고된 질곡의 역사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소설을 통해서 알려려한다. ‘수많은 소설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의 회고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문혁이라는 시대적 과오와 역사적 상처에 대한 작가로서의 문학적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쑤통의 참죽나무 거리 텍스트를 단순히 작가의 동심과 향수, 순수만으로 소환되고 재생되는 낭만서사로 誤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죽나무 거리 텍스트는 문혁으로 얼룩진 상

6) 문혁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은 어린 쑤통에게도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을 남겼고, 이와 관련한 일화들을 쑤통은 「一份自傳」, 「蘇童創作自述」, 「年復一年」 등의 여러 글에서 밝힌 바 있다. 汪政·河平, 『蘇童研究資料』, 2007 참고.

처와 고통의 흔적에 대한 기록이자, 억압적 시대와 사회 속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슬픔, 연민이 담긴 텍스트이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본고의 연구대상인 『城北地帶』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이다.⁷⁾

2. 성북지대(城北地帶), 폭력과 억압의 공간

『城北地帶』⁸⁾는 작가가 자신의 유소년 시절에 대한 기억을 反芻하며, 상처와 결핍으로 얼룩진 성장과정을 復原해 낸 자전적 스토리이다. 쑹통은 문혁이라는 부조리하고 억압된 사회 구조에서 문혁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작동했으며, 개개인의 삶에 어떤 상처와 흉터를 남겼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탐색은 문혁의 터널 속에서 비정상적인 성장통을 겪어야했던 청소년들의 결핍과 상처에 대한 穿鑿으로 이어진다. 당시 청소년들이 경험해야했던 방황과 좌절, 상처와 아픔은 작가 자신을 비롯한 동세대 청소년들이 겪어야했던 결핍과 상처이기도 하다. 쑹통은 청소년 인물 형상들의 음울했던 삶과 비극적 말로를 통해서, 청춘과 꿈을 박탈해가고 거세해버린 억압적 문혁의 시대와 사회에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아울러 시대의 불안과 암울 속에서 제대로 된 성장조차 할 수 없었던 청춘들에게 애절한 위로를 건넨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된 채 방황과 일탈로 얼룩진 암울한 성장통을 겪는 청소년 인물형상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내면에 감춰진 상처와 결핍, 고독과 소외, 좌절과 절망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추악한 가정의 민낯

- 7) 국내에서는 쑹통 작품 번역 붐을 타고 2011년에 『성북지대』라는 원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쑹통의 참죽나무 거리 텍스트의 결정판이자 집대성격인 텍스트로, 충분한 연구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는 이 작품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논문 기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8) 『城北地帶』는 『桑園留念』, 『南方的墮落』, 『刺青時代』 등의 참죽나무 거리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작품으로, 총 23장의 방대한 편폭 속에 1970년대를 배경으로 쑹저우 변두리 마을의 옛 풍경과 생활을 담아낸다. 대하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작가는 수많은 인물군상들을 등장시키며, 그들의 파란만장한 굴곡진 삶의 대서사시를 펼쳐낸다. 쑹통은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힌다. “『성북지대』는 나의 장편 신작으로 몇 편 안되는 장편 작품 중에서 매우 특별한 작품이다. 왜냐하면 소설 속 인물들 모두 내 인생에서 유년시절의 기억을 환히 밝혀주는 무리들이기 때문이다. 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참죽나무 거리는 이 작품에서는 가장 길며 또한 가장 소란하다. 소설을 빌어 유년시절을 되새기는 것은 내게는 아름다운 경험이다. 내가 참죽나무 거리 이야기 구축에 집착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밥 짓는 연기 속에 사람이 있으며, 참죽나무 거리 위로 사람 살아가는 정취가 풍기기 때문이다. (『城北地帶』是我的長篇新作, 在我寥寥幾部長篇中, 它是尤為特殊的一部, 因為小說中的人物都是我真實生活中童年記憶中燦燦爛爛的那一群, 我小說中的香椿樹街在這裏是最長最嘈雜的一段, 而借小說語言溫習童年生活對於我一直是美好的經驗, 我之所以執著於這些街道故事的經營, 其原因也非常簡單: 炊烟下面總有人類, 香椿樹街上飄散着人類的氣息。) ” 蘇童, 『城北地帶』, 『蘇童文集-米』, 江蘇文艺出版社, 1996, pp.1-2. 작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묻어나는 이 글을 통해서, 참죽나무 거리는 유년시절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환기시키는 문학적 원형이자 모태가 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청소년들은 각종 일탈과 비행을 저지르는 病理的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들의 病理的 일탈의 배경적 원인은 소년들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 사회의 황폐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잔혹하고 추악한 가정의 민낯은 소년들의 방황과 일탈을 조장하는 일차적 원인이 된다.

작품 속 주요인물인 리따성(李達生), 샤오과이(小拐), 셴쉬더(沈徐德), 장홍치(張紅旗)는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각종 비행을 일삼는 불량아이다. 리따성은 교통사고로 아버지 리슈예(李修業)를 여의고 어머니 텡핑(滕鳳)과 단 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 텡핑은 16세에 돈에 눈이 먼 아버지에 의해 따성의 아버지 리슈예에게 강제로 팔려왔다. 그녀는 여러 번 가출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따성의 아버지한테 잡혀와 구타와 감금을 당했고, 결국은 성폭행으로 따성을 낳게 되었다. 부모의 강요로 팔려와 시작된 결혼 생활과 원치 않는 임신과 출생, 걸핏하면 행해지는 가정폭력, 이처럼 따성의 집은 출발부터 이미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이 아니다. 텡핑은 남편에게 일말의 애정조차 없으며, 남편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어린 따성에게 냉대와 폭언으로 投射했다. 물리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가 자행되는 공간 속에서 따성은 결핍과 소외를 느끼며 성장했다. 특히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일상화된 폭력 속에 살아온 따성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원수이자 복수의 대상이다. 그렇기에 그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도 오히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다시는 주먹이나 도구로 혼내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父親一去, 再也没有人來以拳頭或者工具教訓他了)”라며 쾌재를 부르고, 심지어 사고 현장을 목도하고도 “멀리서 보면 핏자국이 마치 누군가가 무심코 엎어버린 붉은색 페인트 자국 같았다(遠遠望去它更像被人無意打翻的紅色漆油)”란 식의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다. 아버지의 죽음을 마치 타인의 사망인냥 관망하는 태도나 냉담한 어투에서, 부자지간의 끈끈한 애착관계나 가족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성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그저 폭력의 공포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구원의 소식일 뿐이다. 이처럼 따성의 가정은 붕괴되고 파탄 난 가족 관계의 모습을 보인다. 특히 리슈예의 사망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텡핑은 분노와 원망의 화살을 따성에게로 겨누며, 걸핏하면 따성에게 분풀이를 해댄다. “넌 키우느라 난 16년 세월을 시달렸어. 사고가 나서 네가 잘못되더라도 어디 내가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 것 같니?(養你十六年, 跟着受了十六年的罪, 你要是摔出个三長兩短了, 看我會不會掉一滴泪?)”, “차라리 그냥 나가 죽어버려, 그래야 내 속이 편하지(干脆去死吧, 死了我省心)” 차마 부모라고 할 수 없는 악독한 폭언과 저주의 말은 비수가 되어 따성의 가슴을 후벼 파고, 부모로부터 받은 모진 상처와 배척, 외로움 속에 따성은 더욱더 집박을 배회하게 된다. 더구나 퇴학마저 당하면서 소년 백수가 된 따성은 타인과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 그리고 억눌렀던 내면의 울분과 분노를 폭력으로 해소한다. 이는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억압,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속에, 상처 입은 분노와 절망감이 사회적 약자인 일반 타인에게 복수의 방식으로 投射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리슈예로부터 따성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대물림, 폭력의 악순환의 원인으로 가정 폭력과 함께 국가 폭력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문혁의 광기와 비이성적인 사회 속에서 국가가 휘두른 과격하고 잔혹한 폭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을 모방하고 학습케 했으며, 무감각하고 죄의식 없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조장했다. 따성을 비롯한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자행되는 야만적 폭력을 직접 목도하며 폭력에 대한 부당함, 불안과 공포를 느

끼면서도, 반면에 폭력과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신념은 ‘싸움짱’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품게 하며, 따성을 어둠과 폭력의 세계로 일탈케 만든다.

샤오파이는 자기를 낳다가 죽은 어머니 때문에 홀아버지 왕더지(王德基) 밑에서 외롭게 성장한 아이다. 그는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를 심하게 저는 탓에 샤오파이로 불린다. ‘샤오파이(小拐)’란 본래 ‘절름발이’를 뜻하는 것으로, 참죽나무 거리 사람들은 이름대신에 샤오파이라고 부른다.⁹⁾ 그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따성의 아버지만큼 폭력의 대명사이다. 왕더지는 술만 먹으면 폭언과 구타를 하고, 밥을 굶기는 것은 다반사이며 심지어 밧줄로 묶어서 침대 밑에 방치한다. 일상화된 폭력은 무의식의 세계로까지 확장되어, 샤오파이는 수시로 아버지에게 맞는 악몽마저 꾸다. 이는 일상화된 폭력 앞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폭력을 수용하고 있음이다.¹⁰⁾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폭력에는 반항조차 못하는 소심하고 무기력한 샤오파이가 동물에게 잔혹한 학대를 가한다는 사실이다. 샤오파이는 남몰래 이웃집 黃狗를 괴롭히고 끝내는 황구를 목 졸라 죽인다. 가학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족을 벗겨 내 다 팔고 고기는 삶아 먹는다. 샤오파이의 이 같은 행동은 그간 자신이 被虐者로서 억눌렸던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의식을 자기보다 약한 동물에게 잔인한 방식으로 投射한 것이다. 한 생명을 유희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학대하고 심지어 살상마저 저지르는 행위

9) 이름이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은 일종의 ‘문자화된 정체성’의 상징으로, 한 사람의 고유의 존재적 특성, 정체성을 담아낸다. 이런 면에서 이름은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며 소통하는데, 내 인격의 분신과 같다. 샤오파이가 자신의 이름 대신에 특수한 별명으로 불린다는 것은 타자로부터 가해지는 자신의 존재, 정체성, 인격에 대한 소외이다. 더구나 절름발이를 의미하는 ‘샤오파이’란 호칭은 상대방의 신체적 결핍 및 약점을 폭로하고 이를 조롱하는 것으로, 참죽나무 거리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조차 그를 샤오파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자녀에게 가하는 언어폭력이자 정서적 학대이다.

10)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따성도 아버지에게 맞는 꿈을 꿔다. 특이한 점은 따성의 경우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맞는 꿈을 꿔다는 점이다. 이는 아버지가 사망했어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두렵고 공포스러운 트라우마가 따성을 심리적으로 계속 억압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후 따성은 꿈속에서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더 이상 맞는 꿈을 꾸지 않게 된다. 이는 비록 꿈속이지만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력한 의지적 표현이다. 반면 샤오파이는 현실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꿈속에서 저항조차 못하고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한다. 샤오파이의 이와 같은 소극적이고 위축된 자세를 심리학자들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이는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힘으로 어찌지 못한다는 사실을 학습할 경우 다른 사건에서도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기에 이후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통제 불가능 uncontrollability), 비수반성 인지(noncontingency)라고 하며,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으로 본다. 박경숙, 『문제는 무기력이다』, 와이즈베리, 2017, p.64참고. 이에 의거해볼 때 현실이나 꿈속에서나 샤오파이가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력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폭력을 감내하는 태도는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 조장한 폭력에 대한 자발적, 체념적 수용이다. 부연하자면 샤오파이는 자신이 치명적 신체적 약점이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라, 아버지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습했다. 따라서 자신은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버지를 변화시키거나 제압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무의식인 꿈에서조차 강하게 구속하고 억압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체념과 수용은 강자인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이자 굴복으로, 지속적 폭력의 굴레 속에서 샤오파이는 자존감의 결여,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와 같은 정서적 상처를 입는다.

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모습마저 드러낸다.¹¹⁾ 이처럼 샤오파이는 태생적으로 母情의 부재 및 애정 결핍으로 인한 소외감, 아버지의 구타와 체벌, 신체적 장애로 인한 자기 비하와 열등의식을 내면화하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폐쇄적이고 음울한 소년의 모습을 나타낸다.

쉬더의 가정은 다른 집처럼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진 않는다. 다만 쉬더의 아버지 선팅팡(沈庭方)은 아들이 무슨 일을 하던지 그저 무관심한 태도로 방임할 뿐이다. 이 가정은 부자가 동네에서 음탕하기로 소문난 유부녀 진란(金蘭)과 관계함으로써, 성적으로 붕괴된 추악한 가정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제적되어 병세척 공장에 다니는 쉬더는 같은 공장에 다니는 진란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한다. 여기에 아버지 선팅팡마저 가세하면서, 한 가정 내에서 여자를 둘러싼 부자간의 칼부림사태가 벌어진다. 콩가루 집안을 방불케 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파렴치한 작태는 가족 관계의 파탄 및 윤리와 도덕의 추락을 보여준다. 쉬더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자신의 여자를 가로채는 뽀빠하고 양심 없는 ‘개 같은 늙은이(這條老狗)’으로 모욕과 멸시의 대상이자, 자신이 응징하고 복수해야 할 대상이다.

이처럼 소년들을 둘러싼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추악한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가정불화와 경제적 빈곤, 편부 또는 편모의 결손 가정 속에서, 가정은 따뜻한 울타리와 보호막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야만적 공간으로 전도되었다. 부모들은 소년들을 방치하며, 부모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상실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이 보여주는 가혹한 폭력성과 추악한 성적 욕망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대물림되어, 소년들의 인생을 일탈과 추락의 길로 내몬다.¹²⁾

2) 붕괴된 학교 현장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가정 속에서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듯이, 소년들을 둘러싼 교육 현장 또한 황폐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참죽나무 거리 속 학교는 지식과 인성함양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양산하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교사들 또한 권위와 규율에 기대 학생들을 짓누르고 통제하는 제재자요, 통제자로 군림할 뿐이다.

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는 화학공장의 동쪽에 위치한 동풍(東風) 중학교이다. 이 학교는 이름만으로도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 공포와 위협이 될 정도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문제아들의 집결소이다. 단순히 비행 및 탈선 차원을 넘어 방화나 살인, 강간 등 극악 범죄마저 저지르는 학생들의 행태에, 학부모와 교사들은 서로에게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며 반목한

11) 비단 샤오파이 뿐 아니라 따성도 고양이에게 쇠파스를 휘둘러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어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을 답습하여 무고한 동물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소년들의 잔혹한 동물 학대행위는, 가정폭력의 破片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장애와 질환을 초래함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다. 아이들의 뒤틀리고 일그러진 인성을 보여주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12) 따성, 샤오파이, 쉬더, 홍치 4명의 소년들 중 홍치에 대한 가정사는 다른 소년들 이야기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홍치의 형인 홍하이(紅海)를 비롯하여 이웃에 사는 이중 사촌 형들도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이다. 소문에 의하면 형제의 아버지가 장(張)씨도 젊었을 적 여성을 성폭행해서 자살로 이르게 한 전력이 있다며 홍치의 성범죄를 부전자전으로 치부한다. 이에 의거해볼 때 홍치 또한 폭력적이고 추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 역사 교사는 이 지역의 참죽나무 거리가 명, 청조 때에 北大獄으로 불린 곳으로 죄수들의 수감 지역이었음을 운운하며, 지역적 특수성과 역사성 때문에 불량아들이 많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동료 교사들조차 이에 동조하며 이런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개탄한다. 참죽나무 거리와 학교를 범죄의 온상지 취급하고, 학생들마저 범죄자 취급하는 교사들의 발언 속에는 뿌리 깊은 혐오와 멸시만이 가득하다. 아울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와 학교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나 사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가정 폭력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폭력을 학습했던 아이들이, 폭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2차적 현장 또한 학교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간의 폭력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대낮에 운동장에서 다수의 학생이 학생 한 명에게 무차별적 구타를 가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만, 학생들은 그저 수수방관한다. 학교 어디에서도 폭력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폭력을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성 함양을 책임져야 할 교사조차도 이를 못 본 척 외면할 따름이다. 학교는 배움의 전당이 아니라 폭력의 場으로 변질되었고, 교사마저 교내 폭력을 외면하고 방관함으로써 폭력의 암묵적 동조자가 된다. 학교에 대한 학생의 불신과 환멸은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사간의 첨예한 대립과 불신에서 비롯한다. 그 중심에 쏜마즈(孫麼之) 교장과 정치 교사 리팡(李胖)이 있다. 신입 교장 쏜마즈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工宣隊 출신¹³⁾이다. 그는 공선대 출신이 어떻게 교장이 되고, 왜 자신을 퇴학시켰냐고 따져 묻는 따성에게 “당장 꺼져버려. 감히 공선대를 들먹이다니! 학교를 사십 일이나 빼먹고, 날마다 밖에서 도박에 도둑질 하는 놈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누굴 제적시킨단 말이나? 저런 망종들은 진짜 구제불능이야(你给我出去, 竟然敢工宣隊! 曠課四十天, 天天在外面賭博小偷小摸, 不開除你開除誰? 這幫雜種真是無法無天了)”라며 욕설을 퍼붓는다. 리팡 또한 수업 중 반항하는 샤오파이의 먹살을 잡고 “이 도둑놈, 좀도둑놈의 새끼. 도로 길바닥으로 꺼져버려(小偷, 三只手, 給我滾回大街上去吧)”라며 그를 교실 밖으로 내쫓는다.

이처럼 교육 현장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상호 경멸과 혐오심이 팽배하며, 막말과 욕설이 난무한다. 이는 학교라는 또 다른 계급사회 공간에서 교사가 자신의 우월적 권력에 기대어, 학생에게 언어적 폭력 및 정서적 가해를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교사의 권력형 폭력과 가해는 급기야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전도된 초유의 사태마저 초래한다.¹⁴⁾ 학생과 사사건건 첨예한 갈등과 대립각을 세우던 리팡이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 교권의 심각한 침해이자 교권의 추락, 또 다른 폭력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이미 회복불가로서, 전통적 사제지간의 신뢰와 존경, 유대감

13) 공선대란 노동자로 조직된 마오쩌둥 사상의 선전대를 뜻한다.

14) 우통은 유년시절을 회고하며 학생들이 교사에게 집단린치를 가했던 사건을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상급생 선배들이 책걸상을 산처럼 높이 쌓고 꼭대기 위에 여교사를 세워놓은 채, 발로 책걸상을 무너뜨려서 교사를 추락시켰다고 한다. 우통은 그 사건 이후 학교에서 그 교사를 마주칠 때 그녀 이마에 남겨져있는 흉터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이것은 지워낼 수 없는 기억이자 실제 있었던 사실의 기록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유년시절의 충격적인 사건과 기억을 우통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해낸다. 蘇童, 「六十年代, 一張標籤」, 汪政·河平, 『蘇童研究資料』, p. 29 참고.

은 철저히 붕괴되었음을 드러낸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응징해야 할 적대적 대상으로 전략했으며,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학생 또한 구체불능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전략했을 뿐이다.

학교 교문 담벼락에는 퇴학을 당하거나 제적된 학생들이 적힌 흰색 대자보가 붙었다. 마치 묵은 공기를 내뿜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듯, 우후죽순처럼 대자보 상의 이름들은 끊임없이 나붙었다.(勒令某人退學或開除某人學籍的白色海報張貼在學校大門的側牆上, 海報上的名字總是在吐故納新, 像雨後春筍般地不斷涌現。)¹⁵⁾

하루가 멀다하게 교문 담벼락을 수놓는 제적생들의 명단은 지속적인 학교의 권력형 폭력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식이다. 학교는 학생지도, 학생관리 차원이란 명분을 빌어 학생들의 일상을 제어하고 통제한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제적, 퇴학이라는 강력한 징계와 처벌로 골칫거리 문제아들을 숙아낸다. 이는 학교가 문제아들을 공동체 안으로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들에게 학교에 부적합한 불량아란 낙인을 찍어 학교 밖으로 축출하려는 대단히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학교가 교정과 계도의 대상으로서 문제아들을 선도하기보다, 교권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위력을 행하는 권력형 폭력의 메커니즘을 목도할 수 있다.¹⁶⁾

3) 일그러진 사회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외면당하고 배척당한 아이들은 결국 거리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리로 내몰린 소년들이 마주한 세상은 어떠한가? “성동은 난폭하고 성서는 흉악스럽고, 성남은 살인방화에 성북은 똥독간이다(城東蠻, 城西惡, 城南殺人又放火, 城北是個爛屎坑)”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온갖 범죄가 횡행하는 무법천지이다. 이같은 살벌한 세상 속에서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모방하여 패거리 집단을 조직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세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타 집단과의 잔혹한 피의 혈투를 벌인다. 도저히 청소년들이 벌이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쭈툰 잔혹하고 야만적인 풍경을 그려낸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붉은 거리, 난도질당한 사상자의 처참한 형체, 핏자국이 낭자한 각종 살상 도구 등등, 잔혹한 폭력현장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그런데 참죽나무 거리 사람들은 이러한 끔찍한 폭력이나 죽음 앞에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격투기 시합을 관람하듯 강렬한 자극과 흥분을 느끼며, 누가 싸움의 최종 승자인가에만 관심을 갖는다. 참죽나무 거리 사람들에게서 섬뜩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거리에

15) 蘇童, 『城北地帶』, 『蘇童文集一米』, 江蘇文艺出版社, 1996, p.229.

16) 이 같은 학교현장의 폭력 메커니즘은 당시 부조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행되던 정치적 폭력 메커니즘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 계급투쟁의 명분하에 진행된 대대적인 색출과 숙청은 학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어, 학교는 불량한 문제아들을 교내 불순세력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학교 밖으로 강제로 축출했다. 또한 학교는 정치구호가 적힌 선전물을 배부하고 ‘동원대회’라고 적힌 정치관련 현수막을 거는 등, 학교를 전인교육 구현의 장이 아닌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전파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구현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이처럼 정치적 이념과 사상 투쟁이 강조되고, 이념의 비호아래 자행되던 무분별한 폭력과 획일화된 사상교육은 학교인 교육 현장까지도 철저하게 붕괴시켰다.

펼쳐진 잔인하고 참혹한 살육 장면들은 사람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억눌린 분노, 광기, 폭력성을 자극한다. 특히 폭력에 길들여지고 무감각해진 폭력의 鈍感症은 폭력 행사를 자연스럽고 익숙한 현상으로 수용케 하여, 폭력의 耐性을 강화시킨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더욱 더 혐오스럽고 잔혹한 폭력 행위에 자극과 흥분을 느끼고, 이를 통해 내면의 원초적 폭력성을 간접 해소한다. 바로 이런 폭력에 대한 耐性和 鈍感症이 참죽나무 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야만적 폭력을 재생산하고 조장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심지어 범죄와 탈선의 위험으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경찰들조차, 참죽나무 거리에서는 폭력의 원흉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군림한다. 쉬더와 함께 경찰서에 끌려온 파싱에게 경찰관 샤오마는 “내가 너한테 무산계급 전체정치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허리띠로 백 대다. 이게 규칙이다. 얼른 바지 벗어. 그리고 어디 네 놈 거시기 털이 얼마나 났는지 보자 (讓你嘗嘗無產階級專政的厲害, 皮帶一百下, 這是規矩. 快把褲子脫掉. 我順便看看你長了幾根×毛)”라며, 채찍질과 함께 성적 모욕과 수치를 가한다. 시민의 권리와 안녕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에게 폭력과 위해를 가하고, 심지어 성희롱과 성추행을 자행하는 이 장면은 공권력의 폭력과 인권유린을 보여준다.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으로 이미 자연스레 폭력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은 이처럼 사회에서도 폭력이 각종 문제 해결과 패권 쟁탈의 수단이 되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폭력=힘’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잘못된 신념과 확신 속에 아이들은 불나방처럼 폭력의 세계로 뛰어든다.

그러나 이렇게 각종 폭력과 범죄세계로 무한질주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어른들은 “남자애들은 크면서 선생 없이도 저절로 터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여자 건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방화하고 살인하는 거지(男孩長大了有兩件事無師自通, ×女人不用人教, 殺人放火不學就會)”라고 대수롭잖게 반응한다. 아이들의 범죄행위를 의례히 사춘기 청소년이 겪는 통과 의례 행위로 치부하는 태도는, 참죽나무 거리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의 부재를 보여준다. 특히 심각한 도덕성 붕괴와 윤리의식의 부재는 각종 ‘사망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과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웃 노인이 기차길 옆 텃밭에서 콩을 따다가 기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로지 “잘 익었어. 요새가 누에콩이 제일 연하고 잘 익었을 때지(够新鮮的, 這時節的蠶豆最嫩最鮮了)”라며 주검 옆의 누에콩에만 관심을 보일뿐이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폭력만큼 일상다반사의 풍경이자 그저 무감각한 단어이다. 사람들은 내가 살고 죽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타인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다. 척박하고 빈곤한 참죽나무 거리에서 생존문제는 곧 생계와 직결된다. 따라서 주인 없는 바구니 속 콩이야말로 자신들의 생계를 충족시킬 일용할 양식이다. 이런 냉혹한 이기주의 앞에, 고인에 대한 애도와 같은 기본 인성이나 도덕적 윤리는 실종되고 없다. 이외에도 백치 소년 ‘꺼우꺼우(狗狗)’가 날아보겠다고 새 흉내를 내다가 석교 밑으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아이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어른들의 호기심어린 방관과 외면이 결국 한 아이의 고귀한 생명을 비극적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한다. 이 모습들은 이웃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도덕 불감증이 만연된 비정한 세태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참죽나무 거리는 문화대혁명 시절 중국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야만적 폭력이 팽배

하고 윤리의식이 실종되고 도덕성이 마비된 당시 중국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황폐한 사회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리 만무하다.¹⁷⁾ 참죽나무 거리 어디에도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모델이 되어주고,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줄 대상 및 사회적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야반화(夜飯花), 거세된 未完의 청춘

참죽나무 거리에는 ‘야반화(夜飯花)’라는 꽃이 지천으로 깔려있다. 작품 속 설명에 따르면 이 꽃은 다른 꽃들과 달리 석양이 지면 꽃망울을 터뜨렸다가, 다음 날 아침 해가 뜨면 꽃잎을 거둬들인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안 보이다가 밤 때가 되어 저녁에 반짝 나타나는 아이들에 빗대어, 이 꽃을 야반화라는 이름 대신에 ‘야반화(夜飯花)’라 부른다.

여러 사람의 생명이 마치 가을 길목에 핀 야반화처럼 갑자기 시들어 떨어져갔다. 지금은 봄이건만 봄인들 어떠하랴. 새가 지저귀고 꽃향기 가득한 연둣빛 봄날에 불의의 화살이 날아들어, 그 불쌍한 이들로 하여금 정들었던 참죽나무 거리와 영원히 이별하게 만들었다(一些人的生命就像秋天街頭的夜飯花突然枯萎墜落了, 現在是春天, 但春天又怎麼樣, 這種淡綠色的鳥語花香的季節善於施放冷箭, 讓那些不幸的人與他們熟悉的香椿樹街永遠分離。)¹⁸⁾

이 꽃은 참죽나무 거리 아이들을 비유하는 중요한 이미지이자, 그들의 비극적 파국을 암시

17) 문혁이 초래한 황폐한 사회 환경과 더불어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참죽나무 거리에 대한 환경적 묘사이다. 그간의 참죽나무 거리 시리즈와 달리 이 작품에서는 유독 오염되고 황폐한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와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한다. “성북의 하늘은 온통 공업용 기름연기로 가득하다. 탄소분말과 시멘트 입자가 7월의 뜨거운 바람을 타고 조금씩 떨어져, 참죽나무 거리의 집 창틀엔 검고 흰 먼지 분진들이 수북이 쌓였다.…강물은 물고기가 사라진지 오래됐으며, 강물위로 석탄과 시멘트를 실은 바지선과 함께, 기름 찌꺼기, 쓰레기와 죽은 쥐의 사체들이 둥둥 떠다녔다.…강물은 혼탁하고 매우 더러웠다. 지긋지긋한 비닐봉투와 폐지들이 모기나 파리처럼 수영하는 사람을 뒤쫓았고, 강물은 공업용 기름과 찌꺼기 침적물이 혼합되어 고약한 냄새로 진동을 했다.(城北的天空聚合了所有的工業油煙, 炭黑和水泥的微粒在七月的熱風裏點點滴滴地墜落, 香椿樹街人家的窗臺便蒙上黑白相雜的粉塵…現在河水已經沒有魚了, 有運煤和水泥的駁船隊駛過河道, 有油污、垃圾和死鼠漂浮在水面上…河水是混濁骯髒的, 不僅是討厭的塑料帶和廢紙像蚊蠅一樣追逐游泳者, 河水本身也散發出一種由工業油料和污泥混合的怪味)” 蘇童, 『城北地帶』, 『蘇童文集—米』, p.225, p.244, p.246 참고. 이처럼 쭈통은 작품에서 성북지대에 대한 환경적 묘사를 상세하고 빈번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참죽나무 거리의 오염된 대기 환경이나 수질 환경을 보여주려 함이 아니다. 쭈통은 이곳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는 매우 부적합한 황폐한 생존 공간임을 환기한다.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 환경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서식하는 공간이 아니다. 강물과 하천을 뒤덮은 오수와 그 사이를 부유하는 쓰레기, 죽은 동물들의 사체 이미지는 이곳이 생기와는 거리가 먼 생명의 不毛地임을 은유한다. 작품 속 인물 군상들의 각종 병리적 모습과 그들의 불안정하고 뒤틀린 내면세계와 정서는 바로 이같은 열악한 생존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런 공간에서 참죽나무 거리 소년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리 만무하다. 생명의 不毛地와도 같은 이곳에서 소년들은 희망과 꿈을 상실한 채, 분노와 좌절, 환멸감을 느끼며 방황하고 부유할 뿐이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각종 부유물이나 동물의 사체처럼 말이다.

18) 앞의 책, p.393.

하는 복선 장치가 된다.¹⁹⁾ 어둠 속에서 피고지고를 반복하다 시들어 떨어지는 야반화의 애처로운 운명처럼, 참죽나무 거리 아이들의 말로는 대부분 비극적 과격으로 귀결된다. 그 중에서도 파성은 청춘의 꿈을 채 펴보지도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하다가 폭력으로 비운의 생을 마감하는 가장 불쌍한 영혼이다.²⁰⁾

싸움짱이 되어 참죽나무 거리를 평정하고 싶었던 파성은 10대1의 난투 끝에 죽음을 맞는다. 죽기 전 그는 옆 동네 ‘十步街’ 깡패무리들과 경찰관 샤오마를 손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둔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맹목적인 집착을 보이는 파성. 왜곡된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객기와 만용을 부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철부지 소년의 허망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폭력에 광적으로 집착케 하고, 결국은 죽음의 종착역으로 내몬 걸까. 앞서 살펴봤듯이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과 체벌,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폭언 속에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파성은, 집을 벗어나 거리로 뛰쳐나왔지만 어디에서도 수용되지 못하고 외면과 배척을 받았다. 거부와 배척은 파성에게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그로 인한 소외감과 외로움은 세상을 향한 적대감과 분노를 낳았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절대적 가치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억눌린 분노를 분출하려 했다. 그것이 파성에게는 ‘폭력’이었다. 더구나 파성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폭력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식이자, 약자를 억압하고 굴종시키는 최고의 방식임을 목도했다. 이는 폭력에 대한 집착과 맹신을 가져왔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폭주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왔다. “새카만 석탄 가루가 망자의 옷과 운동화, 그리고 피범벅 된 얼굴과 죽기 전 마지막 표정까지도 모두 덮어버렸다.(乌黑的煤粉遮蓋了死者衣服和球鞋的顔色, 也遮蓋了他滿臉的血污和臨終表情)” 작품은 파성의 비극적 최후를 이렇게 묘사한다. 무의미한 대결과 혈투, 폭력이 빚어낸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쓸쓸하다. 이처럼 파성은 소외되고 방치된 채, 자신이 그렇게도 집착했던 폭력의 그늘 속에서 희생양이 되고 만다.²¹⁾

19) 야반화는 작품 속에서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방치되어 거리로 내몰린 참죽나무 아이들뿐 아니라, 과거 문혁의 혼돈 속에서 꿈과 희망조차 거세당한 채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 했던 당시 모든 중국 청년 세대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20) 파성 외에도 제대로 된 꽃망울조차 피우지 못한 채, 참죽나무 거리와 작별을 고하고 만 두 명의 소녀 메이치(美琪)와 진홍(錦紅)이 있다. 메이치는 홍치에게 강간을 당한 후 수치심과 두려움, 마을 사람들의 폭력적 시선과 압박에 결국 15살의 꽃다운 나이로 자살했다. 샤오파이의 누나 진홍은 홀아비인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대신해 공장을 다니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장녀였다. 늦게 귀가했다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버지의 횡포 탓에, 밤새 집 앞을 배회하다 결국 동네 깡패들에게 목숨을 잃고 만다.

21) 파성의 죽음을 폭력에 집착하다 죽음을 맞이한 개인의 불행한 죽음으로 치부하는 것은, 그의 죽음의 의미를 개인적 문제로 퇴색시키는 것이다. 파성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미 가정과 학교로부터 권력과 지배, 억압과 순종이라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경험한 소년들은, 극좌적 사회 속에서 폭력이 용인되는 실상을 목도하게 된다. 이는 파성을 비롯한 거리의 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을 통한 강자만이 승자가 되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억압한다는 왜곡된 사고와 가치를 강화시켰다. 이에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학습한 대로 타인에게 무분별한 폭력과 살상을 입히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마저 잃게 되는 비극적 결과를 맞는다. 이처럼 파성을 비롯한 아이들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폭력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의해 희생된 죽음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홍치 역시 스스로 자초한 성적 욕망의 탓에 걸려, 꿈과 미래를 상실한 불쌍한 영혼이다. 사춘기 청소년에게 있어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욕구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그러나 열여덟의 혈기왕성한 홍치는 그만 이웃집 소녀 메이치를 성폭행하고 9년형을 선고받는다. 수감된 홍치의 모습은 “예뻐던 두 눈이 지금은 두 개의 유리구슬처럼 흐리멍덩해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렸다.(那雙漂亮的眼睛, 現在它們像兩顆玻璃子似的呆滯無光, 它們躲燦着游移不定)”라고 묘사된다. 이 문장은 목전의 참담한 현실뿐 아니라 잿빛 가득한 불투명한 미래를 전망케 한다. 9년의 죄값을 치르고 출소한들 홍치가 과연 전과자라는 낙인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청춘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을까. 그는 성 폭행범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단 채, 평생을 죄인의 굴레 속에서 소외되어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홍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홍치가 자신의 욕정을 제어하지 못한 그 순간, 그의 청춘은 이처럼 나락과 파멸을 향해 직진하고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쉬더와 샤오파이는 어떨까? 쉬더와 샤오파이의 경우 파성과 홍치처럼 확연한 비극적 파국의 결말을 보이진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태도와 의식을 통해, 그들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며 순탄하기 힘들 거라는 부정적 전망을 갖게 한다.

부자지간을 오가며 한 가정을 붕괴시킨 진란이 쉬더의 아이를 출산하면서, 쉬더의 인생은 변곡점을 맞이한다. 쉬더는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진란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같이 떠나자는 진란의 부추김에 넘어가 청다오행을 결정한다. 결국 쉬더는 집으로부터의 탈주, 즉 가출을 시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쉬더의 가출이 과연 무엇을 위한 탈주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둘의 탈주는 지고지순한 사랑에 기초한 사랑의 도피행각도 아니요, 권태로운 일상과 지긋지긋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환멸로 인한 충동적인 결정이다. 진란은 성적으로 무능하고 무미건조한 남편 대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쉬더와의 섹스와 쾌락이 필요했다. 쉬더 또한 성욕을 해소하고 충족시켜줄 진란이 필요했다. 여기에 진란을 쟁취함으로써 아버지에게 복수하고픈 치기와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픈 욕망이 결합하여, 가출이라는 형태로 즉흥적 탈주를 감행한 것이다. 세상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청춘의 특권이다. 그러나 가출의 목적이 자유와 방종을 빙자한 현실 도피라면, 가출은 청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쉬더의 가출이 청춘의 특권으로서 유의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주체적 고민과 극복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쉬더의 가출은 한 청년이 세상 속으로 진입하며, 성숙해지는 성장 서사로서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 쉬더에게나 진란에게서는 주체적 각성이나 깨달음, 내면적 성장의 모습이나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장난치듯 동전 던지기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처음 타 본 기차에 애들 마냥 흥분하며 날뛰는 철부지 청춘남녀의 모습만 있을 뿐이다. 주변 승객의 시선을 통해 쉬더를 응시하는 작가의 시선 속에는 미성숙한 청춘들에 대한 답답함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교차한다.²²⁾

22) 쉬더의 가출은 새로운 목표나 꿈을 찾아 떠나는 도전이나 성장의 여정이 아니다. 그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미성숙한 청춘의 치기 어린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를 빙자한 비겁하고 공허한 청춘의 모습일 뿐이다. 특히 시종일관 진란의 품 속에서 속박된 채, 진란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쉬더의 모습은 주체적 의지를 상실한 빈 껍데기의 청춘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록 신체적 성장으로 어른인 척 흉내 내고 어른인 채 굴지만, 여전히 유치한 언행을 일삼는 상반된 쉬더의 모습은, 청소년

샤오파이는 작품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반전의 모습을 보인다. 그는 폐지 줍는 라오캉(老康)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지하실에서 국민당 시절의 무기 창고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를 신고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참죽나무 거리를 표류하던 문제아에서 영웅으로 등극한다. 무기 창고를 어떻게 발견했냐는 질문 세례에 “어떻게 발견했냐고요? 혁명의 경계심을 높인 거지요(怎麼發現的? 提高革命警惕嘍)”라며, 말끝마다 정치적 선전구호를 읊는 샤오파이는 예전의 샤오파이가 아니다. 예전의 위축되고 자조적인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작품에는 샤오파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이웃집 빨강 셔츠가 걸린 빨래 말뚝을 일부러 넘어뜨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장면은 샤오파이의 뒤틀리고 일그러진 자아가 투영된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다. 작품 속 서술에 의하면 빨강 셔츠는 요새 유행하는 셔츠로 이웃집 진성(金生)의 옷이다. 궁핍한 처지에 있는 샤오파이에게 부유함의 상징인 빨강 셔츠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환기시키는 욕구 불만의 대상이다. 따라서 빨강 셔츠가 달린 말뚝을 넘어뜨리는 행위는 결핍과 상처로 일그러진 자아에 대한 왜곡된 보상 심리이자, 그간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타자를 향한 적대감과 분노의 投射이다. 앞 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샤오파이는 또래 중에서도 궁핍한 가정환경, 모정 부재, 신체적 장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핍과 상처 속에서 무기력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온 소년이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영웅 대접을 받게 되면서, 그는 수치스러웠던 낮은 자존감을 폐기하고 비루했던 옛 자아와 단절을 꾀한다. 그 과정에서 샤오파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자아로의 변신을 꾀하는데, 문제는 그가 모색하는 자아 또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질서에 의해 ‘왜곡된 자아’라는 데 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행위가 황당하게도 적대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하고, 나라를 위한 구국의 행동으로 정당화된다.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위해서라면 범법행위마저 용인하고, 더욱이 이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애국청년, 혁명전사로 미화하고 칭송하는 이런 사회가 당연히 정상적일 리 없다. 한마디로 광기의 사회이다. 이렇게 당시 문혁이라는 극좌적 정치이념과 사상으로 경직된 사회구조와 가치관 속에서, 샤오파이가 어떻게 제대로 된 인격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의 미래가 건강하고 올바른 청춘의 성장서사를 보여줄 수 있을까.

중산복을 빼입고 앞주머니에는 볼펜과 만년필을 꽂은 채, 말끝마다 혁명을 운운하며 혁명전사를 흉내 내는 샤오파이에게 실소와 함께 씁쓸함이 느껴진다. 우리는 그를 탓할 순 없다. 그에게 이데올로기적 욕망과 虛像을 주입한 것은 문혁의 시대와 사회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결핍과 상처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샤오파이가 자신에게 썩어진 혁명전사, 영웅이라는 왜곡된 虛像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를 새로운 자아 정체성으로 추구하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붉은 혁명의 광란에 몸을 맡긴 채, 청춘과 미래마저 거세당했던 홍위병의 모습과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샤오파이가 과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작가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샤오파이 또한 극좌의 사회가 배양해 낸 홍위병처럼 꼭두각시 괴물로 성장하진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 점이 샤오파이의 미래와 청춘에 대해, 낙관적 전망보다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세계와 성인 세계 양 경계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배회하는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이중성의 모습을 띤다. 그리고 작가는 이런 두 청춘남녀의 모습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4. 나오며

이상으로 우리는 참죽나무 거리 텍스트의 집대성격인 『城北地帶』에 대해 살펴보았다. 쭈저우의 외곽지대인 ‘성북지역’과 ‘참죽나무’ 옛 거리는 쭈통과 가족, 이웃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과 자취가 묻어있는 공간이자, 과거 문혁으로 인한 결핍과 상처의 잔상들로 점철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부연하자면 쭈통에게 ‘성북지역’과 ‘참죽나무’ 거리는 과거 유년시절의 일상 풍경과 추억을 환기시키는 협의의 개인적 공간의 범주를 넘어, 문혁에 대한 아픈 상처와 기억이 集積된 광의의 사회적 공간으로 그 외연이 확장된다. 이런 맥락에서 ‘성북지역’과 ‘참죽나무’ 거리는 쭈통의 문학 세계에서 시대적, 역사적 숨意를 갖는 중요한 공간이 된다. 아울러 ‘성북지역’과 ‘참죽나무’ 거리는 쭈통에게 추억의 공간이자 동시에 아픈 상처의 공간이기도한 양가성을 띤다. 쭈통은 문혁의 세월 속에서 성장의 한 축을 직접 경험했기에, 문혁의 시대적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 쭈통에게 성북지역과 참죽나무 거리는 유년의 향수를 자아내는 아름답고 따스한 공간 외에, 거대한 혼돈과 迷妄속에서 희망이나 出路조차 보이지 않는 고독하고 음울한 공간으로 기억된다. 이에 쭈통은 아름다웠던 반면에 불안하고 혼돈스러웠던 유년시절을 회고하며, 억압된 사회 속에서 겪어야했던 수많은 결핍과 상처, 아픔에 주목한다.

『城北地帶』에서 쭈통은 암울했던 문혁의 세월과 그로 인한 상처와 결핍, 좌절과 절망으로 흑독한 성장통을 앓아야 했던, 청소년들의 청춘 잔혹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낸다. 혹자는 쭈통의 참죽나무 거리 텍스트가 문혁을 배경으로 했던 여타의 다른 작가 작품과 뭐가 다르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쭈통의 참죽나무 거리 텍스트가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은, 작가의 문학적 시선이 어른 세대가 아닌 어린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비주류이자 소외되었던 이들을 주인공 인물 형상으로 내세웠다는 데 있다. 문혁의 재앙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온몸으로 경험한 어른들 못지않게, 자녀들이었던 청소년들 또한 억압적 시대의 피해자들이다. 문혁은 성장기에 있었던 이들의 삶을 관통하며,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각인시켰다.

문혁의 혼란과 재앙은 가정과 학교, 사회의 모든 기능과 기틀을 마비시키고 황폐화시켰다. 특히 정치 이데올로기의 광풍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성, 윤리와 도덕마저 훼손시켰다. 모든 것이 붕괴되고 해체된 혼돈의 迷妄속에서, 청소년들은 올바른 선도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우왕좌왕 방황해야만 했다. 누구든지 어른이 되기 위한 성장통을 겪는다. 그러나 참죽나무 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성장통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흑독하고 잔인했다. 더구나 문혁의 시대는 꿈을 꿀 수도,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잃어버린 시대였다. 꿈이나 희망, 미래가 박탈당한 삶은 무기력하고, 자포자기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은 폭력이나 성적일탈, 가출, 왜곡된 자아 등의 뒤틀린 방식으로 내면에 쌓인 분노와 좌절, 절망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비행과 일탈로 얼룩진 자기 파괴적 몸짓은 결국 시들어 떨어지는 夜飯花처럼 스스로를 비극적 파국의 길로 이끌 뿐이었다.

이렇게 그 시절 푸르려야 할 초록빛 청춘은 문혁이라는 시대의 불구성 앞에 잿빛의 회색 청춘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고, 이는 쭈통을 비롯한 동세대 청소년들에게 痛恨으로 남는다. 이런

면에서 쭈툼의 다음과 같은 말은 심금을 울린다.

장편소설 『성북지대』는 추모입니다. 내 청춘과 유년기의 삶에 대한 나의 추모입니다.(長篇『城北地帶』就是一次祭奠, 是對我青春期和童年生活的一次祭奠)²³⁾

담담하면서 묵직한 여운이 느껴지는 이 의미심장한 고백에 더 이상의 蛇足은 불필요하다. 『城北地帶』는 암흑과도 같은 문력의 터널 속에서 꿈과 희망을 박탈당하고, 청춘마저 거세당했던 동세대 청춘들에게 바치는 작가의 哀悼이자 ‘青春悲歌’이다.

【참고문헌】

- 쭈툼, 『성북지대』, 송하진 옮김, 비채, 2011.
박경숙, 『문제는 무기력이다』, 와이즈베리, 2017.
蘇童, 『城北地帶』, 『蘇童文集-米』, 江蘇文艺出版社, 1996.
蘇童, 『少年血』, 江蘇文艺出版社, 1993.
蘇童·王宏圖, 『蘇童·王宏圖對話錄』, 蘇州大學出版社, 2003.
汪政·河平, 『蘇童研究資料』, 天津人民出版社, 2007.
章立群, 「蘇童의 시대 嚙語—論『城北地帶』中少年—論蘇童成長之痛」, 『湖北科技學院學報』, 제3기, 2017, 03.
江國良·高承新, 「告別醜陋的父親們—蘇童“頑童系列”小說審父淺論」, 『中國現當代文學研究』, 2008, 12.
瞿靖, 「迷戀與追尋—論蘇童中短篇小說中南方少年形象」, 『哈爾濱學院學報』, 제35권, 2014, 10.
吳雪麗, 「從晦暗到澄明—論蘇童的“香椿樹街”系列小說」, 『東方論壇』, 제5기, 2009.
張磅礴, 「“傷痕”的另一種書寫方式—論蘇童小說中的惡魔少年形象」, 『喀甚師範學院學報』, 제1기, 2008.
<https://www.douban.com/note/554244574/> (蘇童: 香椿樹街的故事, 我到死都不寫完)

23) 蘇童·王宏圖, 『蘇童·王宏圖對話錄』, p.2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城北地帶, 香椿樹街, 缺乏, 傷痕, 青少年人物形象, 夜飯花		
	영문	The North Area, Oak Tree Street, Deficiency, Scarring, Image of the Youth, A Night Flower		
<div>Deficiency and Scarring in the Sutong(蘇童)'s The North Area(城北地帶) : Focused on Image of the Youth</div> <div>Chang, Yun-Son</div> <p>The North Area(城北地帶) is an autobiographical story about a writer who recites his childhood memories and restores the growth process stained with wounds and deficiencies. SuTong(蘇童) notes the question of how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文化大革命) has influenced individuals' lives. He focuses on what scars has been left in the individual's life under the repressed social structure of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文化大革命). This problem leads to the lack and scarring of adolescents who had to suffer from abnormal growth pains in the tunnel of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文化大革命). As a detailed analysis and the betterment of the thesis, relationship between oak tree streets(香椿樹街) and SuTong(蘇童) was described in Chapter 1. In the second chapter, teenagers, the main characters, and their lives on the streets of oak trees(香椿樹街) in The North Area(城北地帶) has been specifically reviewed. This paper has focused on teenagers who live in poverty under the absurd and violent environment of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文化大革命). Further, teenagers wandering in indifference under violent and ugly families, dilapidated schools, and distorted societies have been also reviewed respectively. In the third chapter, the feature of a Flower(夜飯花, a flower that blooms only at night), which is highlighted as an important image in the work, details the gloomy life and tragic story of young figures. Through this, SuTong(蘇童)'s anger and grief has been shown at the era of oppressive literary revolution, which deprived and castrated youth and dream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장윤선 / 張允瑄 / Chang, Yun-Son		
	소 속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Em@il	zhyxuan@pc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5월 02일	심 사 일	2019년 05월 23일
	수 정 일	2019년 0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6월 18일